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으며

오늘 교회학교 졸업식과 감사예배

교회학교 졸업식이 각 학교별로 오늘 일제히 거행된다. 졸업식을 갖는 부서는 13개 교회학교 중 연령과 학령에 의해 구분되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부 등 모두 7개 교회학교이다.

한편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학교 졸업 감사예배를 드린다.

1일 0시 송구영신예배

송구영신 예배가 1999년 1월 1일 0시에 교회당에서 드려진다.

예배는 0시정각에 타종과 함께 소동한 상태로 시작된다. 교우들은 예배시작 30분 전에 미리 착석해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

송구영신예배에서는 신년메시지가 선포되고 교회의 갱신과 국가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새해 새 출발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한 뒤 순서를 맡은 이들이 회중을 대

표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갖는다.

3일 신년감사예배와 성찬식

1999년도 첫 주일인 다음 주일(3일) I·II·III부 예배는 신년감사예배로 드린다.

새 해,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다짐하며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또한 이날 예배의 헌금시간에는 신년감사 헌금을 드린다.

3일 찬양예배시 순결서약식

1월 3일(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1999년도 순결서약식이 있다.

이에 앞서 서약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1998년 12월 3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리엔테이션 및 기도회가 403호실에서 진행된다.

4일 새벽 '98청지기수련회

1999년도 청지기 수련회가 1월 4일(월)에

시작한다.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지기수련회는 교회학교 교사, 예배위원, 찬양대원, 전도회 임원, 교구일꾼, 목사·장로 등을 대상으로 새벽 5시 35분부터 6시 15분까지 진행된다.

특별제직회와 공동의회

1. 특별제직회

- 때: 1998년 12월 27일(주일) 찬양예배 후
- 의제: ① 1998년도 결산 승인의 건
② 1999년도 예산 승인의 건
- 회원: 본 교회 제직

2. 공동의회

- 때: 1999년 1월 3일(주일) III부 예배 후
- 의제: ① 1998년도 결산 승인의 건
② 199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의 건
③ 기타
- 회원: 본 교회 세례교인

각 부서, 성탄절 구제 활동 활발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교회 각 부서에서 구제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구제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는 대내 구제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서초구내 극빈자와 주몽재활원, 나사로의 집 등을 각각 방문하여 주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매월 돕고 있는 서초구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물품 양면으로 지원했다.

한편 각 교회학교에서도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각종 구제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초등부에서는 샌터마을을 찾아 무의탁 치매 노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등부에서는 예담원을, 고등부에서는 여자 고아 70여 명이 생활하는 선덕원을, 대학부에서는 영락보육원을 각각 찾아 준비한 선물을 전하

고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찬양대 지휘·반주자 위로회

해마다 연말에 개최되는 6개 찬양대 지휘자·반주자를 초청, 격려하는 자리가 올해는 29일 열린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종윤 목사와 찬양위원들이 함께 모여 찬양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 99년도 계획검토 및 기도회를 갖는다.

28, 29일 교역자 수련회

98년도를 돌아보고 99년도 목회설계를 하기 위한 교역자 수련회가 28일(월) - 29일(화) 이틀간 열린다. 해마다 열리는 이 교역자 수련회는 영성을 충전시키는 기도와 부서별 보고 및 점심을 교역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목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

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가급적 심방요청이나 다른 계획을 중단함으로 교역자들의 모임이 충실히 수있도록 협력해 드리고 기도로 지원해 줄 것이 요청되고 있다.

'목사·장로 안식년제' 10대 뉴스에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 목사)은 '98년도 한국교회 10대 뉴스를 지난 12월 20일자에 선정, 발표하고 '우라' 교회가 제창하여 시행하고 있는 목사·장로 임기제를 금년 10대 뉴스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처럼 목사·장로 임기제가 교계 중요 뉴스로 선정된 것은 이 제도를 따르는 교회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특히 교단적으로도 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교회갱신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야 강해

바벨론, 앗수르, 블레셋의 멸망

이사야 14장 22 - 32절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을 때 왕들과 백성들은 과연 이 예언들이 자기들과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선포한 것이 본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앗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앗수르가 망하는 모습은 곧 바벨론이 망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1.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막을 자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단 4:35).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22절).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제하리라”고 하셨습니다(23절). 바벨론은 못별 위에 올라서려고 했고 다른 신을 점령하여 모든 산 위에 신으로 군림하려고 했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견하며 뽐내려고 했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결국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가정에서도 문제를 생기는 것을 보면 자기를 너무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멸망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잔인하게 행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앗수르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교만하여 멸망했다면 앗수르 사람들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행했습니다. 힘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25절). 우리의 명에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 30)고 하시며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

은 하나님뿐이십니다.

2. 하나님 백성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실패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에서 피난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복을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은 전인적인 복을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진정한 살림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제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성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사 14:22 - 32)

이중윤 목사



바로 그 자를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왕 보다 더 힘이 센 히스기야 왕이 일어날 터이기 때문에 저들 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승리는 잠깐입니다. 여기서 뱀의 뿌리는 웃시야 왕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시야 왕보다 더 무서운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고 그 통치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과 같으니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천지가 다 자기들의 것이 된 줄 알지만 막대기가 부러졌다 고 즐거워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31절). 이 세상에는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것보다 더 큰 낭패를 당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4. 원수가 망하는 날 선민은 복을 받는다

블레셋이 망하는 날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오고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됩니다. 원수가 물러간 이스라엘에 주어진 복은 우선 물질적인 복입니다(30절). 블레셋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물질적 풍요를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진정한 축복은 시온을 세우주신다는 것입니다(32절). 시온은 교회를 말합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버리시면 사람에게도 밟힐 뿐입니다. 블레셋과 바벨론과 앗시리아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아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에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며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죽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능자의 심판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자가 망했다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을 때리던 몽둥이가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바벨론과 앗수르와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존절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모님의 임종 앞에서

김범래 (집사, 제 1교구)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임종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번 장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6년 전에 우리 부부를 통하여 뒤늦게 하나님을 영접하셨고 그 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옛날 어머니들의 모습 그대로 어린 아이 같은 순박한 믿음을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열심이지 않았고 생활 속에서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2년 전 의사의 간경화 말기 판정 후 고통의 투병 생활을 해오시면서도 목사님의 심방에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임종 하루 전 최악의 고통 속에서 병마와 투쟁하면서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인정하셨던 장모님께서 임종하실 때의 얼굴 표정은 마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마라토너의 여유로움 아니, 어머니의

젖을 듬뿍 먹고 포만감에 취해 포근히 잠든 아기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 천국이 확실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젊었을 때나 건강할 때 혹은 좀 넉넉한 여유로움을 즐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요즘 몇 년 전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린 채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유로울 때 하나님의 존재를 많이 느끼지 못하다가 어려운 순간에 다달아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내 곁에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좋은 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찾아 오셔서 위로의 말씀과 기도를 해 주신 목사님과 많은 교우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98년을 보내고 99년을 맞이하며

“나누는 사람되고 싶어요”

김기윤(초등부)

하나님 아버지! 98년을 주님의 날개로 감싸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파 기도할 때마다 제 아픔을 없애주시고 제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따뜻하고 인자하신 아버지였습니다. 가정 일로 이곳 저곳 전학을 많이 다닌 저에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성격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초 초등부 찬양대에서 샘터마월에 다녀왔던 일은 앞으로의 제 꿈에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는 막연한 제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랑을 많이 받은 후 병이 많이 나아져 함께 웃으며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 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99년도에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

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의젓한 중학생이 됩니다. 소원이 있다면 학생이니까 배치고사를 잘 봐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또 교회생활에 충실하며 악을 멀리한 용을 본받아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구별되게 행동하여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몇 달 후면 외국으로 떠나실 외할머니께서 건강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 삼남매를 홀로 키우시는 우리 엄마께 건강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13만명의 결식 아동이 있고 굶주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우리 나라에 99년에는 주님께 배운 대로 나누며 베푸는 주의 사랑이 넘쳐나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스며들게 해주세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98 주간성경공부 수료자

오늘 찬양예배 시 올해의 '주간성경공부' 수료식이 있다.

그간 배포된 51주의 주간성경공부 중 25주 이상을 제출해 오늘 수료하는 138명의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교구 = 송두심 이갑연 전인화 송향관 오충례 최난수 유근중 안정옥 최영순 최무순 강종자 채항석 이지혁 배은희 김영심 박순봉 원복순 이응선

2교구 = 고후덕 남태순 이봉규 박정순 황 혼 이혜순 오승민 김용호 이순례 정연택 김명심 하영수 이명희 이채봉 김선희 한진석

3교구 = 김상옥 정옥희 최금자 김인순 김현정 손병석 심재를 임희춘 최근자 주화민 이옥녀 황정임

4교구 = 정경자 이영숙 송정희 김복녀 이승민 이영주 임선철 조준택 서옥덕 유명석 최학인 김항권 김병숙 임훈규 이남복 박순옥 김조영

5교구 = 박창희 손재검 김경희 이민화 이영수 이광렬 이정자

6교구 = 김경옥 한금희 권영자 김종자 성종숙 이영희 박정수 김남숙 유후자 김운자 박은영

7교구 = 박종민 이승현 윤순탄 임윤자 이부자 임순자 이영기 이영서

8교구 = 여현진 김현주 서영희 안인호 양숙란

9교구 = 김진숙 최혜순 김준근 김만선 강정옥 김영연 김찬웅 최영란 송옥혜 김의순 유 신 조상희 송금자 최경애 최정자 최정숙 박두영 전행자 김수정 권오준

10교구 = 윤찬오 최종시 정혜순 이혜선

11교구 = 김양숙 조정옥 이점숙 박선자 조옥섬 이기홍 장정화 신정순 유숙인

12교구 = 여옥기 허인숙 이옥현 김대웅 김형택 정희순 김관홍 김진숙 박명석 최일춘 이안순

순례자 컬럼

누가주셨습니까?

여인이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다. 어제의 황폐를 생각해 보면 오늘의 번영은 꿈만 같아서 하는 고백이요 간증이며 감사요 찬송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내 자신의 그릇에 비해 그리고 노력에 비해 과분한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크게 외쳐 보자. “이것이 어디서 생겼는가”를 세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하나는 ‘나 자신에게서’, 둘째는 ‘이 세상에서’, 셋째는 ‘하나님에게서’라는 대답이다. 첫째는 오만하고 방자한 대답이요, 둘째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에게서’라고 해야 정직하고 지혜로운 대답이 된다.

누라서 감히 인간 만세를 꿈꾸며 허창은 인간예천론을 내세울 수 있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원도 올해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이 민족 모두가 입을 모아 외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성탄절에 서울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두 가지 선물

목사복 제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교회발전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17일 목사복 최종 평가위원회를 열고 3종류의 목사복을 결정, 이를 전국 교회로 확산토록 권장기로 했다. 다음은 한기총 교회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목사복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목사들이 제복을 버리게 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물려 받은 신학 내용과 형식을 버리는 과정에서 목사복도 함께 묻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옷이 나타내는 의미는 형식 이상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목사 제복 착용을 통해 구별된 모습을 외부로 보임으로써 복음 전달의 매체로의 활용, 일관성 있는 제복을 위한 교육적 효과 그리고 자기 규제용으로서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목사제복이 추진된 것이다. 나아가 통일된 목사 제복은 한국 교회 연합의 수단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사복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지난 95년 11월. 한기총 교회발전위원회에서 한국 교회의 외형적 틀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목사복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면서부터다. 이후 2년간 복식연구가와 예배학 연구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명의 디자이너들이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97년 7월 하라미 한국 의상에서 제작한 작품을 선정하고 한국교회 목사복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 이후 수 차례의 평가 작업을 거쳐 98년 12월 17일 개최된 목사복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3종류의 목사복

을 결정했다.

이번에 제시된 목사복은 예·평상복인 베드로셔츠, 평상복인 마을셔츠와 안드레셔츠 등 3종류의 셔츠로, 흰색과 녹색, 보라색, 적갈색 등 교회력에 따라 4가지로 결정됐다. 겉옷은 검정색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색상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결정된 목사복은 성경적, 신학적, 문화적, 교회적 의미가 있다. 먼저 성경적으로



목사복은 복잡하지 않은 단순성과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 신학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상징하기 위해 목 앞에 두개의 선과 목전체를 두르는 한 선을 넣었다. 노예의 상징으로 알려진 목 앞 걸리는 전세기 성직자들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채택하는 한편 걸려 뒤 십자가는 창살문틀 형태를 넣어 십자가를 향해 모이는 연결고리 및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상징토록 했다. 아울러 문화적으로는 한국 교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소매 끝부분에 선을 넣고 소매 단추에도 십자가가 있는 창틀을 새겨 넣었다. 또 교회적으로는 목부분을 선으로 둘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일치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을 내포시켰다.

기독교교도소 초임기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계획을 24일 발표함에 따라 기독교 교도소 설립이 초임기에 들어갔다.

기독교교도소 설립은 한국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원회(이사장 이종윤 목사)가 지난 5년간 관련 연구와 정부 설득을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으로 지난 해 대선 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모든 후보자들에게서 확답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답적 태도에 부딪혀 오랜 줄다리기를 해오다 마침내 이번에 민간교도소에 관한 정부측의 발표를 얻어낸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법제화를 하도록 3당정책 및 법사위 의장들과 협의도 끝낸 상태여서 기독교교도소 설립은 곧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윤 목사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통해 크신 일을 행하신 줄 믿고 또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평가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12월의 새가족 *

이금순 김지현 이상목 김순필 이병열 김영환
신해선 문진우 이근백 손은순 강지숙 강덕림
송윤수 신대천 이이형 정희순 박정선 이성혁
윤재완 최병국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동정

- ◇김연옥 권사(2교구)는故 어천 최중길 선생 서예 유작집을 발간하고 지난 22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추모회를 가졌다. 고인은 김 권사의 부군으로 한국 서예계의 거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 ◇김상철 장로(4교구, 선교위원장)는 미국 오렌지 시에서 열리는 세계문제회의 참석차 17일 출국하여 28일 귀국한다.
- ◇오늘 점심식사는 박정규·정연택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의 연말연시 행사를 위해
2. 100교회 운동을 위해
3. 새 해 새 일꾼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기를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